



여수 송기홍



영광 서화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순천시, 교통 분야 도시 브랜드 전국 제일 노린다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마중택시 확대·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시행

순천시는 지난해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우수상,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 최우수상, 교통문화지수 3등으로 교통평가 전 분야에서 상을 받은 유례 없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 된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마중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던 버스승강장에서 1km 이상 되는 마을 주민이 마을회관에서 소재지까지 방문할 경우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대상 마을 주민 1인당 월 4회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특히 이용권이 있는 주민이 가족이나 마을주민과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명씩 동시에 탑승할 경우 최대 16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급근 4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차했을 경우 운전자의 용무가 끝날 때 까지 교통 혼잡이 지속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의 불만 민원이 발생했던 기존 단속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여, 단속 사실을 사전에 휴대폰 문자로 전송함으로써 자발적인 차량 이동과 교통 정체에

대응 주민 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부터 순천시청 교통과 및 읍·면·동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문자알림 서비스가 실시되는 4월부터 순천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단, 1월 2회 이상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한되며, 해당 서비스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 전송 유무와 관계없이 적발 시 과태료 처분된다.

순천시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와 동시에 단속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순천시는 도심 내 포켓주차장, 삼지 주차장, 주민자율 주차장 등 50여개소를 확충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와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장 공유운동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 고령의 교통약자까지 배려한 교통시책을 추진하여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도약하여 정월, 생애에 이어 교통분야에서도 도시브랜드를 전국 제일로 높일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회순군, '청년이 꿈꾸는' 미래 청사진 만든다

5개년 청년기본계획 수립 등 55개 사업 추진



회순군은 5개년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청년이 꿈꾸는' 미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7일 회순군에 따르면 15일 회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청년기본계획 수

립을 위한 회순군 청년협약체 운영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 TF팀의 각 사업별 팀장이 분야별 청년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전 위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청년 현

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회순군 5개년 청년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은 ▲희망 회순 일자리 창출분야 9개 사업 ▲미래 선도인력 양성분야 11개 사업 ▲회순 특유 청년 문화분야 9개 사업 ▲행복 회순 청년 복지분야 12개 사업 등 총 41개 분야 41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4개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구충근 회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평소 여러분이 꿈꾸는 회순의 미래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실제 정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희망과 비전을 주는 회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군 청년정책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더욱 고민해 다양한 제안을 하며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회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산림보호와 백운산 둘레길 조성사업 본격 추진

산불 예방·병해충 방제 등

광양시는 산불과 산림병해충 예방, 백운산 둘레길 및 숲길 조성 정비 등을 위해 올해 3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감시와 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과 산불 감시 진화장비 운용, 산불 진화헬기 임차에 14억 원,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1억 원, 백운산 둘레길과 숲길 조성 정비 등에 8억 원을 투입한다.

또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를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며,

가을철 산불기간인 11월부터 12월 까지 산불진화과 감시 인력 72명을 투입해 산불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발생 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진화과 산불예방 자원 확보, 진화 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관리를 위한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 10명을 상시로 운영해 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보존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많은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백운산 둘레길도 조성된다. 지난해까부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며,

스 46km에 둘레길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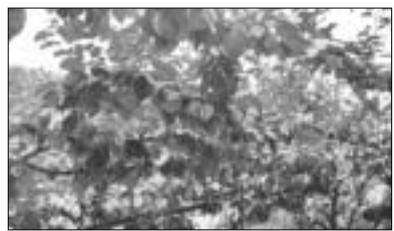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10월 연 이용자 70~80%가 이용하는 백운산 진달~정상 4km구간을 정비한 결과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에는 매화마을~느랭이골 자연휴양림~백학동~수어담~진장을 연결하는 백운산 둘레길 4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권 주변 둘레길과 숲길을 대상으로 훼손된 노면을 정비하고, 목재데크계단 설치, 안내판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해 등산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갈 방침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유망과수 '플럼코트' 전국 제일로 발돋움



순천시는 2016년부터 중소과 중심의 소비트렌드에 맞추고 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플럼코트를 신소득 유망과수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

발한 국내육성 품종으로 지두와 살구를 1:1로 교배하여 맛과 향이 뛰어난 최신품종으로, 티파니·사이니·심포니 등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125농가(35ha)에 보급되었고, 50ha를 추가하여 전국 제1의 플럼코트 생산단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플럼코트가 처음 시범 생산되는 올해는 인공수정 등 착과기술, 유통연장 기술 등을 새롭게 도

입하고, 소포장제 제조, 시식행사 등의 다양한 마케팅사업이 진행예정이다.

순천시는 오는 28일 16시에 순천시농업교육관(덕영동 소재)에서 참여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플럼코트 사업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희망농가는 워크숍에 참석해 사업내용을 청취하고,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미래농업과 749-8764)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원예산업 경쟁력 향상 지원 강화

광양시가 올해 지역 농업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선다.

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3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뜻한 기후조건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원예산업이 발달한 광양시에는 애호박, 오이, 깻잎, 부추, 파프리카, 양상추, 수박 등 여러 품목이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 왔다.

그러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경쟁력 있는 부자 농촌건설'을 농업정책 목표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높은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계절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확충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2.1ha를 설치 지원한다.

또 농산물전문 생산단지과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함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시설하우스의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절



감시설 4.3ha 지원에 4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애호박 인큐와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에도 7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화훼류 신수출품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과수 육성, 학교 과일간식 지원, ICT 융복합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